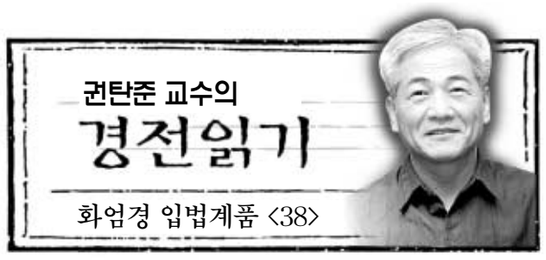

부동 우바이의 법문

모든 법 구하되 싫음이 없는 광명 성취
한결같고 굳센 보살의 수행자세 일깨워

선재동자는 대광왕으로부터 남쪽의 안주(安住)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부동(不動) 우바이를 찾아가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서울에 이르러 부동 우바이가 있는 곳을 물어보니, 그녀는 집에 있으면서 한량없는 친족들에게 묘법(妙法)을 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집을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서니 금빛 광명이 두루 비치는데, 이 광명에 닿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청량해졌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고결하여 잠깐 보기만 하여도 모든 번뇌가 저절로 소멸될 정도였다. 이러한 용모 외에도 몸에서는 한없는 광명이 나와서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항상 묘한 향기가 나왔다. 거기에다가 권속은 셀 수도 없이 많고 궁전도 지극히 화려하였다. 선재동자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 찬탄하면서 그녀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동 우바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꺽을 수 없는 지혜장(智慧藏)해탈문 · 견고하게 받아지니는 수행문 · 모든 법을 평등하게 모두 지니는 문 · 모든 법을 밝히는 변재문 · 모든 법을 구하는 데에 고달파하지 않는 삼매문을 얻었다."

선재동자가 다시 그녀가 터득하고 있는 것들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묻자, 부동 우바이는 자신이 불도를 수행하게 된 인연과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에 수비(修臂)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에 나는 국왕의 딸이었다.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누각 위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허공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뵈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나는 '부처님 세존께서는 어떠한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훌륭한 몸을 얻었으며, 거룩한 모습이 원만하고 광명이 구족하며, 권속을 많이 두고 궁전을 장엄하며, 신통이 자재하시고 변재가 걸림이 없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 때 여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없애라. 이길 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깨뜨리라.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호하라. 의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길에 태어나라. 싫어함이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오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모든 여래의 법비(法雨)를 받으라. 옳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내라. 크게 머물러 지니는 마음을 내어 여러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라. 널리 유통하려는 마음을 내어 중생의 욕망을 따라 법보를 널리 베풀라' 고 하셨다.

선남자여, 나는 그 부처님 계신 데서 이러한 법을 듣고, 온갖 지혜 · 부처님의 열 가지 힘 · 부처님의 변재 · 부처님의 광명 · 부처님의 육신을 구하였다. 선남자여, 내가 이 마음을 낸 후부터는 탐욕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고 다른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한 겁 동안에 받아 지닌 여러 부처님의 바른 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았다. 그 동안에 여러 보살들이 묘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한 가지 행도 내가 성취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또 내가 본 중생들 중에서 한 중생에게도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도록 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항상 모든 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 몸을 나타내며 훌륭한 말로 모든 중생을 깨우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모든 법을 구하여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고,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여 기쁘게 할 뿐이다."

위의 내용은 부동 우바이의 의보(依報)인 거처하고 있는 곳과 정보(正報)인 신체의 용모가 훌륭한 것이 끊임없는 지계 · 인욕 · 정진 등의 보살행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부동 우바이는 다시 자신의 수행의 연기(緣起)로써 자세히 설하고 있다.

부동 우바이는 스스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미진수의 겁을 지나는 동안 여러 부처님의 정법을 한 글자 한 구절도 잊지 않고 지니어 왔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보살들이 훌륭한 행을 닦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것을 모두 성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부동 우바이는 싫음이 없는 삼매의 광명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중생에게 미묘한 법을 말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녀가 머무르고 있는 곳의 이름이 안주(安住)인 것은 항상 진실한 법에 의지하여, 외부의 경계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녀의 명칭이 부동(不動)인 것은 발심한 이래로 무량겁을 지내오면서 세속의 욕심과 성냄과 원한 등에 의해 흔들리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부동 우바이의 법문을 통해 한결같고 굳센 보살의 수행 자세를 배우게 된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⑪

직지인심-10

연기의 세상에서 보면 '생사' 따로 없어

십이연기설에 관해서는 편의상 조계종 포교원에서 편찬한 <불교교리>(조계종출판사, 1998)에 제시된 설명(183~184쪽)을 사용하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무명을 "존재의 자연스런 흐름에 대한 역전(逆轉)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말이 좀 까다로운데, '존재의 진상을 모르고 이에 거스르는 어리석음' 이라고 바꾸어도 좋겠다.

행(行)은 "그 역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결합 작용," 식(識)은 "결합 작용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식별하는 것"이라고 해설하였다. 그 다음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공존하는 상태"(명색, 名色),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바탕으로 개체의 주관성이 확립되는 단계"(육처, 六處), "이미 발생한 다양한 존재들의 부딪침"(촉, 觸), "자신의 존재에 대한 총체적인 느낌을 통한 확인"(수, 受), "즐거운 느낌에 대한 갈애"(애, 愛), "갈애의 대상을 자기화하는 행위"(취, 取), "취하여진 대상이 자기가 되어 버린 것"(유, 有)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오온(五蘊)과 육근(六根)의 나타남"인 생(生)과 "오온과 육근의 붕괴"인 사(死)로 귀결된다.

이해가 될 듯 말듯하다고 조바심 내고 낙심하지 마시라.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만큼 까다로운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단순한 이해를 구해보자.

무명, 즉 어리석음과 함께 개체로서의 주관이 일어나고 따라서 자기 자신과 객체의 구별이 일어난다. 그렇게 주와 객이 별개의 존재로서 서로 접촉하여 지각과 감각, 즉 인식이 일어난다. 객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주체로서의 자기의 개체성을 확인하면서, 객체에 대한 온갖 판단 그 자체를 자기 자신의 자아로 삼는다.

그러니 우리가 생일이 있고 죽는 날이 있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존재, 의심할 바 없이 엄연한 개별자이며 주체로 여기는 나의 존재가 실상은 지각, 감각, 인식의 덩어리이랄까 흐름이랄까 뭐 그런 것이라는 얘기이다. 그 덩어리, 흐름은 흩어지게 마련이고, 그 필연적인 사태를 두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애통해 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해해보자고 했지만 이것도 별로 쉬운 이야기는 되지 못하였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 자신, 그리고 그 밖의 현상 및 사물을 구별하기만 하는 사고방식을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의 개체로 자신을 설정해 놓고 보니, 그 또한 모든 개체와 마찬가지로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운명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다. 개체의 생겨나고 없어짐은 개체를 단위로 보면 엄연하고 절실한 일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세상 전체를 단위로 해서 본다면 그것은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이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我), 즉 독립된 개별자로만 보면 모든 것이 생멸(生滅)하는 존재로만 보인다. 그러나 연기(緣起)의 세계 속에서 모두가 서로 얽혀 있는 존재, 즉 연기적 존재라고 보면 생사라는 것이 애초에 없다.

그러니까 무명이 생사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십이연기설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가 생사라고 여기는 현상은 모든 것을 개별자로만 보는 어리석은 버릇 때문에 절실한 사실로 여겨질 뿐이지, 연기의 세계에서 보자면 실상은 생사라는 것이 아예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연기라는 세상의 진상을 깨달음으로써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이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4>

생명과학이 가는 길

사람을 비롯해 모든 생명체들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생명체는 인연에 의해 뭉쳐져 육신을 지니게 되었고 그 인연이 다하였을 때 각자를 이루고 있던 것들은 흩어져 각각의 길로 떠나면서 개체를 이루고 있던 우리의 육신은 소멸되어 흩어진다.

이렇게 인연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 중에 소위 육신의 병이라는 것과 늙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미 개체를 이루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우리는 당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인연을 붙잡고자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소위 요즈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이 아닐까 한다. 생명체의 물질적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유전자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근 생명과학의 발달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생로병사 막는것 스스로에게 짓는 惡
탐착심 버리고 불자다운 삶 추구해야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 불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칠불통게(七佛通偈)를 다시 보면, 제악막작 중선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마라)이란 불자로서 깊이 명심해야 할 구절이 있다.

물론 대승의 불이적(不二的) 관점에서 선과 악이 둘이 아니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하지만, 이 게송을 보면 분명 불자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을 악이라 할 것인지 알아야 함을 말 해주고 있다. 물론 많은 기준이 이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나로서 굳이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을 말한다면 법(진리)에 수순(隨順)하여 여법(如法)하게 사는 것이 선이고, 법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 만물이 이합집산(離合集散)과 성주괴공을 되풀이하기에 생로병사는 제행무상의 진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의심하지도 않는 병들고 늙음을 두려워하고 이를 막으려고 애쓰는 마음이야 말로 그 자체로서 어쩌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짓는 악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몸을 받아 생로병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본디 그러함을 알아 오직 연기적 인과에 따라 가고 옴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이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야심경>에 있듯이 이렇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란 단지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한 것임을 보아 애착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불자로서 삶을 이렇게 본다면 작금의 눈부신 생명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지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결코 허황된 탐착심을 위한 길이 아닌 경전 말씀처럼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줄 수 있도록 가야 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대 불 광
이 전

조계사 새역사기념관 앞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허 길 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1번지
02)738-1117~8 011)259-8523

불광불교대학 교직원 모집

불광불교대학은 …
1. 한국불교 '전법 1번지' 로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문(名門)의 축적된 역량
2. 불교 정수(精髓)인 반야바라밀 · 보현행원사상을 밝게 전법하는 '순수불교' 근본도량
3. 초발심과정에서부터 지도자과정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눈 높이' 순차(順次)교육
4. 서로 도우며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불자 우애의 신행공동체인 '도반 · 동문' 조직
5. 금하광덕 큰스님의 높으신 유지를 이어받아,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는 그 누구도 부처님 법 공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무차(無遮)' 교육

▣ **모집부문 및 내용**
– 모집 : 교육담당 고졸 1명, 교육담당 대졸 1명
– 내용 : 학사관리 및 교무관리

▣ **응시자격**
– 불교를 신행할 수 있는 자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경력자는 경력 위주로 기술)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경력증명서 – 컴퓨터 관련 및 각종 자격증 사본

▣ **접수(온라인 입사 지원)**
– 접수기간 : 9월 30일한(접수순 우선 심사)
– 이메일 : aloka-edu@hanmail.net
(등본, 증명서, 사본 등은 이미지로 첨부 또는 우편접수)

※ **기타문의 : 교무처장 02)414-4407**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광불교대학**
(138-844)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3 http://www.bulkwang.org
전화 : 02)417-2551(대표) 팩스 : 02)417-2552

氣찬 명당을 만들어 주는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 처방을 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www.6kibang.co.kr**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